**예레미아 애가 개요 (출처 : NYPPC)**

예레미야 애가는 폐허로 버려진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노예로 끌려간 동포들을 생각하며 하느님의 징벌을 초래한 자기들의 죄를 아파하면서 설움과 절망, 비탄과 통곡을 시의 형식으로 엮은 것이다.

**I. 제목**

히브리어 성서에서 첫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삼는 히브리 관례에 따라서 첫 단어인 ‘애카’ 이다.

이 뜻은 ‘아, 어떻게, 오호라’ 등의 놀라움과 슬픔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다. 이 말은 슬픈 노래, 조가의 뜻을 가진 키노트 라는 제목으로 삼았고, 칠십인역 LXX 은 의역하여 ‘눈물들’ 이라는 제목으로 삼았다. 우리말 성서이름은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라는 뜻으로 ‘애가(哀歌)’라고 하였다.

애가는 룻기, 에스겔, 잠언, 아가와 함께 축제 때에 읽혀지는 다섯 두루마리 중의 하나로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 읽혀졌다.

**II. 저자 및 집필 연대**

18 세기까지 예레미야가 저자인 것을 의심없이 받아 드려 왔다. 일부 비평학자들이 예레미야의 저작권을 부인한다. 하지만 우리는 예레미야가 저자 인 것으로 받아 드린다.

(1) 칠십인경은 서문에 예레미야가 멸망당한 예루살렘 폐허 위에 앉아서 애가를 읊었다고 전한다.

(2) 요세프스와 저작, 탈굼, 탈무드, 벨게이트 역본들이 전승에 의지하여 예레미야의 저작을 인정한다.

(3) 오리겐 힐러리 제롬등의 초대교회 교부들과 18 세기 이전의 모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저자로 받아 드려왔었다.

(4) 예레미야서와 압도적인 유사성이 있다.

(5) 예레미야의 생애와 역사적 배경등 모든 면에서 그의 저작설을 부인할 수 없다.

저작연대는 당연히 예루살렘 멸망 후 (주전 586 년) 그의 죽음으로 사역을 마찬 주후 580 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II. 예레미야 애가의 구성**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에 즈음한 선민의 비탄과 간구이다.

애가는 5 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1 장은 폐허로 변한 거룩한 도성,

2 장은 예루살렘 패망의 원인인 선민의 범죄,

3 장은 패망을 목도하는 만감의 교차,

4 장은 패망 당시의 회고와 참상,

5 장은 회복의 간구로 나누어진다.

또한 다음과 같이 나눌 수도 있다.

(1) 예루살렘의 참상(1 장):

바빌론에 함락된 예루살렘을 과부로 묘사하여 그 참상과 파멸을 큰 슬픔으로 서술하고 있다.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위로하는 이 하나 없고 오히려 원수들의 조롱감이 된 비애를 서술하고 있다.

(2) 여호와께서 내리신 징벌(2 장):

예루살렘의 황폐화는 여호와의 징벌임을 고백하고, 마침내 그들의 실망, 비탄, 통곡은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울부짖음으로 바뀐다.

(3) 고통 속의 희망 (3 장):

여호와의 자비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회상하면서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는 희망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4) 징벌을 불러들인 죄 (4 장):

예루살렘의 재난은 예언자들과 사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그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부질없이 외세에 의존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있다.

(5) 영원히 다스리실 여호와 (5 장):

이스라엘이 이방인 손에 짓밟히고 쑥밭이 된 처참한 상황을 울부짖으면서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당신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길 애원하며 그분께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

**IV. 예레미야 애가의 집필 동기**

성전의 파괴와 약탈, 굶주림, 유배 등 유다백성에게 내려진 크나큰 재난을 목격하면서 하느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일깨우고자 했다. 저자는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서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심정을 토로하고, 그러한 슬픔과 절망을 완전하게 표현함으로써 백성들의 응어리진 슬픔과 울분의 멍을 풀어주고 신앙과 희망을 깨우쳐 주고자 했다.

**V.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들**

(1) 인간의 죄와 죄성의 오염은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2)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다.

(3) 형식적인 신앙은 결코 구원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영원할 것으로 착각했다. 성전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

(4)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5) 하나님의 택하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6)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VI. 애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1)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 (3:1)

(2) 성도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3) 성도의 기업이신 그리스도 (3:14)

**VII. 애가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1) 핵심 단어: 애통과 소망

(2) 핵심 절 : 3:19-23

(3) 핵심 장 : 3 장